

전남도립대 '취업보장 고교전문대' 과정 운영

광주·전남 유일 '유니테크 사업' 선정...5년간 산학일체 교육

광주전자공고, 현대·기아차 등 8개 산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전남도립대학교가 고교 3년과 전문대 2년 등 총 5년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한 취업 전제 교육을 실시한다.

전남도립대(총장 김왕복)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이하 유니테크 사업)에 선정됐다.

유니테크사업은 정부가 전문대와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학 2년

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산학일체형 교육시스템이다. 사업에 선정된 고교생은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전문대 진학과 취업이 확정되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전남도립대는 광주전자공고와 현대자동차계열, 기아자동차계열, 르노삼성자동차계열, 쌍용자동차계열 등 취업이 보장되는 8개 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취업보장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취업보장기업의 우수성, 통합 교육과정 편성 및 학사

운영 계획의 적절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전국 16개 대학을 선정하는 이번 사업에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남도립대는 향후 5년동안 ▲통합교육과정 운영 ▲고등직업교육 육성 ▲장년 고용절벽 해소 ▲적극적인 산학협력 활동 지원 제도 구축 ▲전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전문 직무능력 향상으로 노동시장 조기 진입 ▲고교·전문대간 직업 교육 연계 강화 등 청년실업문제의 극복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김왕복 총장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니테크(Uni-Tech) 사업에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앞선 링크사업 최우수 대학 획득과 더불어 도립대학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고교,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청소년이 돌아오는 전남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통합 추진하는 유니테크(Uni-Tech) 육성사업은 고교·전문대학·기업이 연계된 5년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신개념 '산학연계 통합교육'으로서 2015년 하반기부터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산학협력단, 기업신용평가 4년 연속 최상위 등급 'e-1' 받아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 산학협력단이 2015년 기업신용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e-1(AAA)을 획득했다.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산학협력단(단장 송진규·건축학부 교수)은 국내 최대의 글로벌 기업신용정보 제공업체인 (주)나이스디앤비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에서 'e-1'을 받았다.

e-1은 회사채 등급으로는 AAA에 준

하는 등급으로 최상위의 신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환경변화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기업신용평가 e-1(AAA) 등급을 유지, 연구력과 기술력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나이스 기업신용평가 정보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진행 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4개 과제 뽑혀

3년간 18억6000만원 지원...신진연구자 사업 2개도 선정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5년도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에 4개 과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5년도 상반기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2개 과제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지방 대학과 지역 산업체의 공동 기술 개발과제 지원을 통해 지역·현장 맞춤형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과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5년도 지역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은 광주 지역에서 선정된 6개 과제 가운데 조선대가 4개 과제를 차지했다.

최한철 교수(지외예과)는 '플라즈마 전기화학적 산화법을 이용한 임플란트의 생체활성물질 코팅법 개발', 반성범 교수(전자공학과)는 '지능형 영상보안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신현재 교수(생

명화학교분자공학과)는 '대나무 유래 플라노노이드와 폴리페놀을 함유한 고무가죽 미용식품 소재 개발', 최동우 교수(정보통신공학과)는 '개인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응급상황 및 건강정보 제공이 가능한 슬리밍 손목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등의 과제를 각각 수행한다. 이들 과제는 3년 과제로 총 18억 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5년도 상반기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는 2개 과제가 선정, 3년 동안 3억여원을 지원받는다. 강양준 교수(기계공학과)는 'ex-vivo 혈액 생분리성 측정을 위한 미세유체시스템 개발', 최장 연구교수(산학협력단)는 '확률적 시공간 관계 추론 기반 이동 객체의 의미적 이벤트 표현에 관한 연구'를 각각 수행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바이오텍'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

5년간 11억 지원 받아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학교기업인 '광주대 바이오텍'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년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총 11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광주대 바이오텍은 지난 2013년 설립됐으며, 전남지역 특산물로 신장되형성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큰 황칠나무의 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건강식품 '향정단'을 연구·개발·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바이오텍은 이번 사업선정에 따라 황칠단플러스, 황칠엑시스, 황칠비타민 등의 새로운 황칠제품군과 학교가 보유하

고 있는 해조류관련 특허 등의 연구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건강식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체계화된 상시 실시시스템을 구축, 학교기업연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산업에 부족한 전문인력을 배출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역 바이오산업과의 연계, 기술자문 및 공동 제품개발을 통해 지역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대학교는 같은 기간 대응자금으로 3억5000만원의 교비를 투입해 학교기업을 통한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업화 및 수익창출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GIST 사이언스 캠프'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고등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대학생활 체험을 위해 여름방학을 맞아 'GIST 사이언스 캠프(GIST Science Camp)'를 개최했다.

남부대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남부대(총장 조성수)가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의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발해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분야 전문 인력양성 등 12개 사업으로 모두 826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남부대는 피부미용 전공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뷰티에스테틱(피부관리) 전문인력 양성 취업·창업 창출 심화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10월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2회 2시간씩 총 152시간 교육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초·중·고생 꿈 실현 대학주도형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

호남대 랄랄라스쿨, 2년 연속 'A등급'

초·중·고생들이 꿈을 찾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대학주도형 방과후 학교 예비사회적기업인 호남대랄랄라스쿨(대표 정운희)이 교육부의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명품 방과후학교'를 지향하는 호남대랄랄라스쿨은 2012년 설립돼 광주·전남 지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진로, 돌봄, 방과후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지

역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호남대랄랄라스쿨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호남대 교수들과 대학생 및 졸업생들이 강사 또는 멘토가 되어 방과후학교, 진로체험, 돌봄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교사와 강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남도교육청 농촌·도시지역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시범사업인 '함평교육특구사업'을 통해 농촌·도시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우수 강사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특기적성 개발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기 개발 교육특구로 운영하며, 울

1학기에만 합평지역 13개교서 106개의 정규 프로그램과 6개 특별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호남대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전공체험+지역봉사형 견학MT'와 대학생 멘토링, 농촌봉사활동 등은 물론 교내 ICT특성화사업단과 연계한 '찾아가는 ICT과학실현실'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IT스퀘어 체험 등 다양한 교육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차별화된 돌봄지원센터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42개교 68개교실)을 위탁운영하고,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펜션·찻집·식당

전원주택지, 요양(병)원·연수원 적합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귀농/귀촌 전남지역 제1순위 주위, 전원주택 단지등 개발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 30억원
- 매매 - 22억원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8개월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공동중개 환영 H. 010-3605-5000

■ 19평 - 2013년 신축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매매 - 1억 500만원
(시세/분양가 - 1억 3000만원 정도)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파크 빌라

■ 34평 - 2013년 신축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대출 1억 1천만원 안고
매매 - 1억 6500만원
(시세/분양가 - 1억 9천만원 정도)

주인직매 H. 010-3605-5000

최고위치·근린상가

현재, 뷔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7층중 7층 120평
- 레스토랑/레스토랑/커피/커피전문점/호프/PC방/헬스장 재즈바/노래홀/룸수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매매-5억 7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60평 분할 매매-3억원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60평 분할 임대-보 5천에 월 170만원

공동중개 환영 H. 010-3605-5000